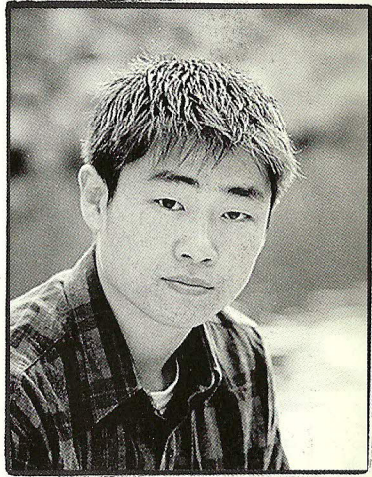




평은 2000년 12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첫마당



꿈꾸는 돼지

안무: 이동용 (신인출 7기)
출연: 이동용, 박흥기, 한종철, 강수빈,
변지원, 황미영, 이상현, 김형곤.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에
잠을 자기도 싫다.
밭동의 맑은 어느새 쌓여만 가는데...
일을 한다, 밭을 간다.



동물원

안무: 박상진 (신인출 4기)
출연: 이주연, 김혜원, 박세영,
황세정, 모건우, 변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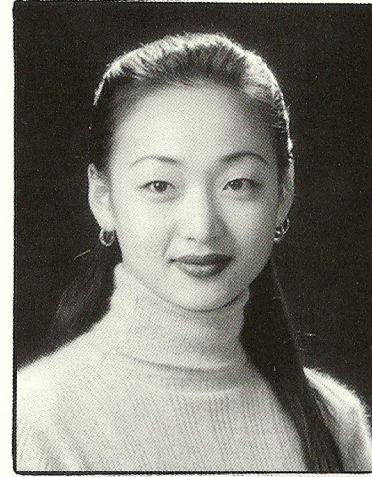
아기낙타가.엄마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눈썹이 이렇게 길어?”
“응, 그건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심한 모래바람을 이기기 위해서란다..”
“등에 있는 혹은요?”
“응, 그건 우리가 넓은 사막을 지날 때
오랫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해 준단다..”
“근데, 왜 우린 다른 애들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았나요?”
“그건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다..”
“...엄마, 그런데 우린 지금
사막에 있지 않고 여기서 뛰하는 거예요??”



만남

안무: 방영미 (신인출 2기)
출연: 방영미, 이화정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과
세계관들을 맞추어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갈등,
그러나 마침내는 화합.



눈물

안무: 허경미 (신인출 2기, 부산 시립무용단)
출연: 이성원, 허경미

나는 지금의 시대를 여성으로 살고싶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히 울고싶다.
눈물로 위안받고 편안함을 얻으며
나의 위선들을 벗어놓고
진정한 나를 찾고싶다



욕망

안무 : 김문정 (젊고푸른 춤꾼 한마당 2001)
출연 : 김문정, 이현정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보고, 듣고, 느낀다.
모든 것을 손쉽게 얻는 사람과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
어디를 향해 날아가기를
원하는 걸까?



움. 숨. 춤

안무 : 김언정 (신인춤 7기)
출연 : 김언정

그것이...움튼다...
그것이...숨된다...
그것이 나를 춤추게 한다.



무언

안무 : 서유미 (신인춤 6기)
출연 : 서유미

내 속의 모든 것을 꺼내고 싶다.
내 속에 흩어진 단어들을 모아
입으로 토하고 싶다.
이젠 나를 이야기 하고싶다



여우야

안무 : 박근태
(신인춤 6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과정)
출연 : 송성아, 이소라, 김시흥, 김해원,
안선희, 임현애

허황된 아름다움.
그 여자의 이야기.



폭포

안무 : 임현미 (젊고푸른 춤꾼 한마당 2001)
출연 : 임현미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지역간 젊은 춤 문화교류의 첫 디딤

세계의 여러 나라를 돌아볼 때 민족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지역마다의 개성과 특색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었다.

“춤은 영남이고 노래는 호남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역문화도 그 특색이 뚜렷하게 전해지고 있다.

영남지역 춤의 뿌리가 고즈넉이 전승되어

이 시대에도 부산지역의 춤꾼들이 훌륭히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더불어 부산지역 젊은 춤꾼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을 채희완 선생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공연 해오신 결과물을 이번엔 국립극장에 초청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마침 창작정신과 실험성 위주의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극장의 별오름 극장이 개관이 되어 서울에서 영남의 좋은 춤을 공연하게 되었다.

이 공연을 시작으로 국립무용단에서는

지역 춤 문화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무더운 여름에 먼길마다 앓고 남도 부산에서 공연에 응해주신

부산 젊은 춤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2001. 6. 29.

국립무용단 단장 배 정 혜

국립극장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사)民族美學研究所

(602-092)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2가 213-4 5/5
TEL. 051-241-5898 FAX. 051-253-5281
E-mail: esthetics@korea.com